

민감하고 반응적인 영아교사 되기

한동옥(라이프어린이집 원장, 강릉원주대학교 박사과정)

- 시작하며 -

2015년 8월 19일은 나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다. 내가 어린이집을 시작한지도 벌써 만 20년이 되었다. 결혼과 동시에 서울에서의 유치원 교사 생활을 정리하고 잠시 현장을 떠났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고향인 원주에 내려 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실 민간 어린이집을 계획했으나 가정어린이집의 전신인 놀이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 원주에서 택지 법에 묶여 민간 어린이집 인가가 나지 않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원을 운영하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힘든 과정도 겪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기회였고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20년은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가슴 벅차는 시간들이다. 영아들의 변화는 항상 나를 흥분 시킨다. 그들과 함께 웃고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훌쩍 50을 넘었지만 여전히 서른셋의 젊음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을 느낀다.

새삼 어린 영아들과 함께 했던 초창기 나의 적응기가 생각난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7년의 현장 경력이 있었으나 어린 영아와의 첫 만남은 낯설기만 했다. 그 시절만 해도 어린 영아들을 기관에 맡기는 예가 흔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영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없었고 나 역시도 영아에 대한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유능한 유치원 교사로서의 7년의 경험으로 원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시작한 것은 큰 좌절만을 남게 했다. 어린이집을 설계하고 지역에서의 최고의 시설을 구비하여 젊은 부모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대기자들이 넘쳤다. 하지만 영아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후회의 연속이었다. 30개월 이상의 영아에 비하여 다섯 명의 18개월 영아는 온 종일 울어 뒀다. 안아 주고 업어주고 달래고 먹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기서 잉~ 저기서 잉~. 한 달 만에 두 명의 영아가 부적응으로 퇴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영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뚝~ 하고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이 벌어졌다. 영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볼풀장으로 뛰어 들어 갔다. 어린 영아들에게는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유능한 영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영아들과 생활하면서 배우고 익히며 우리가 되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영아들과 웃고 있는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도 참 어이없고 창피한 나를 발견한다. 18개월 영아는 나에게 너무도 어리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생각을 알고 있는 듯 그런 존재로서 나를 대했던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수많은 잠재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놀라운 존재인지 20년의 세월 속에 영아들과 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유능한 존재로서의 영아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눈빛과 눈빛으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 줄때 무한한 능력과 잠재 가능성을 지닌 영아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다.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당신도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본 발표 원고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영아교사 되기와 관련하여 먼저 2013년 발표된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과정에 나타난 개인적 내러티브 사례연구’와 그 후속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중인 ‘전래자장가 듣고 낮잠 들기 사례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아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1.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과정에 나타난 개인적 내러티브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1세 영아가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적 내러티브의 특징 및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15개월 남아에 대한 단일 사례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첫째, 1세 영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의 형식은 몇 개의 한 단어 말, 몸짓,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1세 영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의 말과 몸짓의 의미는 과거 삶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었다. 셋째, 1세 영아는 개인적 내러티브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행동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응시하고 웃으며 지속적 관심 표현하기, 다양한 음성어와 몸짓으로 의미어 표현하기, 갈등과 저항 행동하기, 상호텍스트 읽기로 의미어 확장 적용하기, 의미어를 인정받은 후 편안해지기 등이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1세 영아도 자신의 존재와 의지를 드러내고자 다양하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 1세 영아의 개인적 내러티브의 출현에 자극제가 된 것은 그림책 읽기 과정에 나타난 그림 정보와 교사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기회였다.

□ 악어를 ‘아야’라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교사는 15개월 남아 준우에게 그림책 「배」를 읽어주고 있다.
 준우 : 아야 (배 위에 뽕자탕 초록색 악어를 가리키며)
 교사 : 악어
 준우 : 아야~ (오른손 검지를 입에 넣고 왼손으로 악어를 가리키며)
 교사 : 악어
 준우 : 아야~, 아야~, 아야~ (교사를 응시하면서 입에 손가락을 넣고 반복한다)
 교사 : 아니, 악어예요.

교사가 15개월 준우에게 「배」 그림책을 읽어준 어느 날 준우가 배 위에 올라탄 초록색 악어를 가리키며 ‘아야’라고 하자 교사는 ‘악어’라고 명명한다. 그러자 준우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아야’라고 한 단어로 반응하지만, 교사는 여전히 ‘악어’라고 명명해 준다. 준우는 계속해서 ‘아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지만, 교사는 여전히 ‘악어’라고 명명해준다. 교사는 비언어시기에 있는 준우가 ‘악어’를 ‘아야’라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확하게 ‘악어’라고 발음을 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악어를 ‘아파’라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준우는 자발적으로 「배」 그림책을 가져와 악어가 나오는 장면을 펼친다.
 준우 : 아야~ (악어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입에 넣는다.)
 교사 : 악어예요. 아야, 아니고 악-어
 준우 : 아파~, 아파~, 아파~ (교사를 응시하면서 입에 손가락을 넣고 반복한다)
 교사 : 아니, 악어예요.

이틀 뒤에도 준우는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아야’라는 단어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교사는 ‘아야’를 부정하며 악어라고 정정해 준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림책의 악어를 응시하더니 교사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아파’라는 한 단어를 연거푸 반복하여 말하지만, 여전히 교사는 ‘악어’라고 반응해준다. 이후에도 준우는 같은 장면을 펼쳐 악어를 가리키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깨무는 흉내를 내면서 ‘아파’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였다.

□ 악어를 ‘아빠’라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준우는 「배」 그림책을 가져와 악어 그림을 펼친다.
 준우 : 에~ (악어를 가리키며 소리를 낸다)
 교사 : 돼지 꾹꾹 돼지, 나도 탕내. (텍스트 읽기)
 준우 : 아어 (악어를 가리키면서 교사를 본다)
 교사 : 그해, 악어
 준우 : 아빠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서)
 교사 : 악어

또 이틀 뒤 준우는 악어를 가리키며 ‘아어’라고 발음하고 돼지와 구분할 수 있다. 교사가 악어로 인정해주자 이번에는 악어를 가리키며 다른 쪽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아빠’라는 한 단어로 말한다. 그렇지만 교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어’라고 명명해 준다.

□ 저항하는 몸짓에 민감해야 해요

「배」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15개월 남아 준우는 가리키기를 하고 교사는 명명해 주기를 하는데 커다란 코뿔소를 자주 가리킨다. 교사는 옆에 있던 ‘사라가 쿵!’ 그림책을 펼쳐 주므로써 다른 그림책으로 흥미를 이끌어준다.
 교사 : 사라(준우가 책장을 넘기며 사라를 가리킴)
 준우가 계속해서 책장 넘기기에 집중하는 동안 교사는 페이지의 글 텍스트를 읽어주었다. 여러 동물들이 사라 아래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 텍스트에서 멈추었다.
 준우 : 에~(글을 가리킴)
 교사 : 주룩주룩 비가 내리네. 우산을 쓰고 어야 가야겠네. (글 텍스트 변형).
 준우 : (고개를 흔들며 옆에 펼쳐져 있는 ‘배’ 그림책의 ‘코뿔소’를 가리킴)
 교사가 글 텍스트를 계속 읽어주자 준우는 ‘배’ 그림책을 집어 던진 후 ‘사라가 쿵!’ 그

책을 접어 던진다. 그리고 팔을 앞뒤로 흔들고 나서 교실을 기어 다니다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다시 기어가면서 ‘아야, 아빠’ 한다.

비언어시기에 있는 영아는 그림책을 선택하고 가리키기를 주도하면 교사는 명명해 준다. 여러 권의 그림책이 바닥에 놓여 있고 준우는 언제나 흥미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고 가리키기를 할 수 있다. 영아는 펴 친면의 ‘배’ 그림책에 ‘회색의 코뿔소’가 있고 그림책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과가 쿵!’에는 아홉 마리 동물들이 나와 있다. 동물들을 살펴다가 코뿔소와 색이 같은 ‘회색 곰’을 가리킨다. 교사는 영아가 가리킨 동물을 명명해 주지 않고 글 텍스트를 변형하여 읽어주자 영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는 것을 몸짓으로 알린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가 계속해서 읽기를 진행하자 옆의 ‘코뿔소’를 가리키고는 그림책을 접어 던져버린다. 그리고 다시 ‘사과가 쿵!’ 책을 접어 던지고 나서 팔을 앞뒤로 휘젓다가 교실을 기어 다니며 ‘아파, 아빠’ 소리를 낸다.

이는 먼저 읽은 그림책에서 ‘코뿔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가 쿵!’에서 ‘코뿔소’와 비슷한 ‘곰’을 발견하고 이것도 ‘코뿔소’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교사에게 가리키기를 통해 명명해줄기를 의도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교사는 글 텍스트를 변형하여 읽어 주었다. 영아는 그것이 아님을 고개를 저어 알리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함을 표현하는 특이한 영아만의 표현인 기어 다니면서 ‘아야’, ‘아빠’를 명명해 본다. 그림책 읽기를 통해 교사는 글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물의 개념이 많지 않은 어린 월령의 영아들은 이야기의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영아는 보이는 상징을 통해 사물의 개념을 습득하기를 우선한다. 교사는 영아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된 명명하기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준우의 언어 학습 능력 파악하기

준우 : (발을 응시하다가 가리킨)

교사 : 발

준우 : (발을 다시 가리킨다)

교사 : 헐이잉~ 발, 나도 태워줘 발

준우 : (무릎 위의 펼쳐진 그림책을 옆으로 내려놓고 오른발과 왼발을 차례로 옮긴다)

교사 : 이걸 ‘발’이요 이걸 ‘발’이요

준우는 ‘발’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이라는 말을 듣자 개념은 전혀 다른데도 발음이 비슷한 ‘발’로 인식하여 자신의 발을 올리는 참조 구하기 행동을 보인다. ‘발’과 ‘발’에 대해 ‘발’에 대해 ‘발’을 올리는 반복된 행동을 보였으나 이후 준우는 말과 발을 구별하였다.

□ 인지적 갈등에 따라 상호작용해요

15개월 남아 준우는 그림책의 상징의 색에 집중하여 반응하고 있다.

교사 : ‘나도 탈래~’ 지렁이가 탈았어요.

준우 : 으으~(초록색 악어를 응시하다가 초록색 청개구리를 3초간 응시하며 가리키기를 하며 교사를 쳐다본다)

교사 : 청개구리~ 개구리 청개구리(준우가 계속 교사를 쳐다본다)

준우 : 으으~(청개구리를 계속 응시하고 교사의 표정을 살핀다)

교사 : 개구리, 청개구리. 청개구리~

준우 : 으~(오른손에 개구리, 왼손에 초록색 악어를 가리키며 교사를 본다)

교사 : 악어~ 청개구리

준우 : 으(초록색 개구리를 두 손으로 가리키며)

교사 : 청개구리~ 개구리, 또 누가 있나?

영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악어’를 자주 접하였고 어린이집 생활 속의 그림책 읽기에서도 ‘악어’에 흥미를 보이며 가리키기 행동이 빈번이 일어났다. ‘아어’라고 언어적 발화를 하였고 ‘악어’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던 영아는 그림책 읽기를 통해 왼쪽 열림 면의 ‘초록색 악어’와 오른쪽 열림 면의 ‘초록색 청개구리’를 동일시하였다. 왼 손가락으로 악어를 오른손가락으로 청개구리를 가리키며 ‘똑같다’로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개구리’, ‘악어’로 명명하는 교사의 반응에 의문을 가지고 탐색하였다. 이는 영아가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하여도 동일한 색으로 인해 모양이나 형체보다 색을 먼저 선호하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유아기 아이들은 형태보다 색으로 사물을 먼저 판단한다. 심리학자 칸트의 실험에서 유아에게 빨간 원반을 보여주고 찾아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색의 원반이 있었지만 빨간 사각형과 삼각형을 모아왔다는 실험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박영선, 2012). 또한 일상적 사물이 색 덩어리로 지각되기 위해서는 지각자의 시선이 사물의 형태가 아닌 색에 집중될 때 가능하다(이미숙, 2002). 또한 김소영(1989)은 유아들의 분류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준거는 색, 모양, 크기의 순서라고 보고하고 있다.

□ 준우의 의미어를 인정해주기

준우 : 어~ (그림 텍스트를 가리키면서 교사를 본다.)

교사 : 굽

준우 : 악~ (가리키면서 교사를 본다.)

교사 : 악어

준우 : (교사를 응시하더니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는다.)

교사 : 양~ 악어가 깨물어요? (작은 소리로 천천히 눈을 응시하면서)

준우 : (손가락을 빼고 천천히 손등으로 입을 닦으면서 교사를 주시한다.)

응~ (굽을 가리킨다.)

교사 : 굶
 준우 : (악어를 가리킨다.)
 교사 : 아야 했어요.
 준우 : 아~ 어

드디어 교사가 “아~ 악어가 깨물어요?”라고 인정하여 말하자 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사를 응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메시지를 교사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확신한 준우는 자신도 악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악어를 처음으로 ‘아~어’라고 발음하여 교사를 인정해 주는 반응을 보였다. 준우는 이후 악어를 가리키면서 교사의 ‘악어’라고 명명하는 것에 더 이상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았고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악어’라고 발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다음으로 두 연구자는 준우에게 있어 ‘악어’와 ‘아야’ 그리고 ‘아빠’와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준우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되짚어 보기로 결정하였고, 학부모와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준우 어머니는 흔쾌히 면담에 응해 주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주었다.

□ 준우의 악어-아야-아빠 간 연결고리 찾기

아빠는 준우가 어렸을 때 애정표현의 방법으로 ‘양양 양~’하면서 엉덩이나 엉굴 등 신체 부위에 입을 대고 깨우는 놀이를 자주 하였는데 준우는 싫어했어요. 준우를 사랑하는 아빠의 애정 표현이었지만 아빠의 수염자국이 준우에게는 여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따갑고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준우 어머니와의 면담 결과, 어머니는 준우의 악어에 대한 기억이 아빠와 아프다는 경험으로 8개월 준우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이는 과거에 준우 아빠가 준우와 악어인형을 가지고 깨우는 놀이를 하면서 아빠의 수염자국의 따가움이 강렬한 감각적 통증으로 각인되어 악어의 개인적 의미가 아빠, 아프다로 장기기억된 것으로 분석된다. 준우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련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악어는 ‘아프다’를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사례 5부터 8에 의해 1세 영아 준우가 그림책의 악어 그림을 볼 때마다 악어, 아파, 아야, 아빠로 나타내는 말과 몸짓은 과거 몇 개월 전 아빠와의 악어인형놀이 시 아빠의 턱수염의 따가움을 아프게 느꼈던 준우의 생활 경험과 연결된 의미가 있음이 밝혀졌다.

□ 상호텍스트 읽기로 의미어 확장 적용하기

준우가 그림책 「부릉부릉 뽕뽕」의 초록색 거북이 그림을 보고 있다.
 준우 : 어~ (책장을 넘겨 초록색 거북이를 가리키며 교사한테 눈을 마주친다.)
 교사 : 거북이~ 거북이에요.
 준우 : 때이~ (옆에 놓여있는 「배」 그림책의 초록색 악어를 가리킨다)
 교사 : 악어
 준우 : 아 어~ (다시 보고 있던 그림책의 ‘거북이’를 가리키며 응시한 후 책을 덮고 바닥에 대고 위아래로 세 번 밀고 당긴다.)

아빠~ (소리 내고 기어갔다.)

준우는 새로운 그림책 「부릉부릉 뽕뽕」에서 나온 초록색 거북이를 보고 기존의 「배」 그림책의 초록색 악어와 연결 짓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호텍스트 읽기 행동이다. 더 나아가 초록색 거북이에 대해서도 초록색 악어에 부여했던 ‘아빠’와의 선행경험을 연결하여 의미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준우에게 악어와 아빠의 동일시가 매우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준우는 관찰 초기 15개월 시기에는 모든 초록색의 상징을 악어라고 하였으나 16개월인 현재 서로 다른 형태로 표상된 모든 악어그림을 악어로 변별해 내는 능력을 보이는 가운데에도 초록색 거북이를 여전히 악어, 아빠라고 표현하고 있다.

□ 의미어를 인정받은 후 편안해지기

준우는 「배」 그림책을 앞쪽에서 뒤로 넘겨서 가리키며 정확한 발음으로 ‘태지, 아구지, 태지, 코뿔소, 뽕’을 명명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뽕’을 가리키며 ‘뽕’, ‘악어’를 ‘에’ ‘뽕고기’를 ‘우어’라고 명명하고 ‘코뿔소’를 가리키며 크고 정확하게 ‘코뿔소’라고 명명하고 다른 면의 ‘코뿔소’를 가리키며 소리 없이 응시한다.

준우 : 코뿔소(교사를 향해 크고 정확하게 명명하고 연구자를 다시 응시한다.)

교사 : 코뿔소

준우 : (앞에서 명명했던 코뿔소를 가리키며 연구자를 응시한다. 책장을 넘겨 ‘하마’가 나오자 가리키며 교사를 향해 크게 명명한다)

하마! (크게) 코뿔소! (교사를 응시하며) 하마... (작은 소리)

준우 : 이거(악어를 가리키며)

교사 : 악어

준우 : 아야, 아빠

안녕 (그림책을 살펴다가 책을 접고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가 내린다)

준우는 여러 동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한다. 코뿔소를 정확하게 코뿔소라고 명명하면서도 코뿔소와 비슷하게 생긴 하마가 나오는 순간 하마와 코뿔소 사이를 왔다 갔다 말하기도 하고 교사, 연구자를 응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등 인지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시 악어를 가리키며 명명하기를 요구하고 여전히 교사가 악어라고 하자 다시 이전의 ‘아야-아파-아빠’의 의미를 재현하여 말한다. 그리고는 혼자 그림책을 탐색하며 천천히 그림책을 넘기고는 뒤표지를 덮고 ‘안녕’하고 인사말을 한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준우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명명어를 그대로 학습하지만, 악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의미부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자신의 의미어를 한번 인정받은 이후에는 이전에 보였던 갈등이나 저항에 가까운 강한 주장보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아빠와의 일상적 경험 회상하기

늦잇감이 바닥에 걸쳐 있고 18개월 남아 준우는 그림책을 선택해 가면서 교사와 읽기를 계속하고 있다. 「꼬꼬댁 꼬끼오」 그림책을 읽다가 아빠 닭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준우 : 아빠 에~ (아빠 닭을 가리키며), 어엉~(교사를 살펴보며 아빠 닭을 주시함)
 교사 : 꼬끼오 꼬꼬댁
 준우 : (그림책을 옆으로 놓으며 아빠 닭을 가리키며 교사를 살펴)
 교사 : 이젠 아빠 닭
 준우 : (교사를 살펴보다가 아빠 닭을 응시하다가 가리킴). 아빠에~ 으응, 으 (영국을 찜그리면서 턱을 비빔)
 교사 : 거기 나왔어요. 닭아줄게. (면 손수건으로 턱을 닦아줌)
 준우 : 으으~ 응~으으~(영국을 찜그리고 계속 턱을 비빔)
 교사 : 괜찮아요. 다 닦았어요. (준우를 살펴보다가) 한 번 더 닭을 까요(턱과 손을 닦아줌) 아 ~ 여기 아빠 닭에 벼슬이 있구나. (그림책을 준우 앞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여기(벼슬을 가리킴)
 준우 : 아빠 아찌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아빠 닭을 가리키면서)

그림책 읽기를 계속하던 영아가 아빠 닭을 응시하다가 턱을 문지른다. 교사는 영아가 침을 흘린 것을 닦는다고 생각하여 침을 닦아 준다. 영아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턱을 문지르자 교사는 침을 닦아서 괜찮다고 상호작용한다. 교사는 영아가 계속해서 턱을 비비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닦아주면서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교사는 영아의 침을 닦아주었는데도 계속해서 턱을 비비는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교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세심히 살펴보다가 아빠 닭의 벼슬을 발견한다. 교사는 영아가 아빠 닭의 벼슬과 아빠의 수염을 연관시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영아가 아빠 수염이 따갑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아는 교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밝은 목소리로 아빠 닭을 부른다. 영아는 15개월 몸짓언어로만 표현하던 것이 점차 한 단어시기에 접어들면서 몸짓언어와 소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5개월 영아가 악어와 아빠를 연결하여 아프게 했다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아빠의 수염이 따갑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영아의 몸짓언어는 다양하다. 개별 영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된다. 일정한 패턴이나 행동양식이 없는 만큼 교사는 영아가 처해있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세심한 관찰과 개별영아의 행동특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작은별 어린이집 영아들의 전래자장가 듣고 낮잠 들기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만 1~2세 영아 6명이 일과 중 전래 자장가를 듣고 낮잠을 자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행동을 보이고, 또래 및 교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변화해 나가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그 결과, 첫째, 영아들은 전래 자장가의 리듬에 맞추어 몸짓을 표현하면서 본성적으로 잠 놀이를 즐겼다. 둘째, 영아들은 전래 자장가를 듣고 토닥거리고 읊조리면서 스스로 잠이 들었다. 셋째, 영아들은 전래 자장가 사설의 낱말과 이야기에 일상생활 경험을 연결하여 친숙함과 공감을 느꼈다. 넷째, 영아들은 전래 자장가를 듣고 잠들면서 가족 간 사랑을 경험하고 소통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아들에게 전래 자장가 듣고 잠들기는 통합적 전인 활동이자 문화적 활동의 의미이다.

□ 친숙하게 반겨 듣기

평소 영아들은 낮잠시간에 주로 서양 자장가 인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고 잠들었다. 그러다가 전래 자장가를 들려준 첫날, 영아들은 새로운 것에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면서 반응하며 본성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6명의 영아가 개별 이불에 나란히 누워있고 교사는 처음으로 전래 자장가를 들려준다. 「자장가(1)」, 「자장가(2)」가 반복되어 나온다. 음원 소리에 한석은 소리 나는 쪽을 주시하다가 교사를 쳐다보고 앉으면서 가우뚱 가우뚱거리며 웃음 띤 얼굴로 “뭐야, 뭐야?”하고 묻는다. 교사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 자장~” 하며 떠나 부른다. 진혁은 거꾸로 옆드려 누우며 엉덩이를 등썽이고 소리 나는 쪽을 수줍게 웃으며 바라본다. 하진은 교사를 힐끗 쳐다보고 씩웃 씩웃 웃고, 원팔에 머리를 기대고 고개를 까딱 까딱거리다가 진혁과 마주보며 겹겹하게 웃는다. 곡이 바뀌는 사이에 1~2초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영아들은 목을 길게 빼고 소리 나던 쪽을 바라보거나, “앗 나탈요!”, “끝났어요!” 하다가 다시 음원 소리에 서호서호 눈빛을 보내면서 씨익 씩 웃는다.

교사가 처음으로 들려주는 전래 자장가에 영아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말, 표정, 몸짓 등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영아가 ‘소리 나는 쪽을 주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접한 전래 자장가에 몰입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바라보며 웃기’로 보아 소리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탐색하면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모습이다. 영아가 ‘거꾸로 엎드리는 것은 소리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행동이며, ‘고개를 가우뚱’하거나 묻는 행동은 새로운 느낌에 대한 정서적 단서와 사회적 참조를 구하고 있다. 영아는 새로운 분위기에 눈 마주침과 미소로 어색함과 친근감을 동시에 표현하고 서로 확인해 가면서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몸짓으로 리듬 타기

영아들은 전래 자장가 리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장가(5)」, 「자장가(1)」, 「자장가(2)」가 반복되어 나오고 교사는 자장가를 떠나 부르며 이불을 덮어 주고 있다. 22개월 남아 한석은 손을 뻗잡고 이마를 리듬 있게 두드리다가 귀 옆에 대고 곤지곤지 하는 것처럼 반복하다가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교사가 “고 자야지.” 하자 웃음을 머금은 채 옆드려 장단을 치는 것처럼 발을 번갈아가며 ‘핑~핑핑~’ 두드리다가 왼 밖으로 내밀어 ‘쿵쿵~쿵쿵~’ 소리 나게 두드린다. 「자장가(5)」의 전주에 한석은 “워이 워이”하면서 이불을 끌어당긴다. 잠시 후 가슴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각 2회씩 토닥거리다가 ‘자랑 자랑~’에 두 손을 모아 뽀뽀 이마 위를 빠르고 리듬 있게 두드린다.

영아의 팔 흔들기나 곤지곤지 등 반복적인 몸 움직임은 영아기 발달 특성상 운동 감각을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다. ‘곤지곤지’는 손의 조작능력을 키우고 발을 두드리면서 대근육을 조절해 봄으로서 신체 균형감을 발달시키고 조절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핑핑핑’, ‘쿵쿵쿵~’ 소리의 차이를 탐색하고 반응하는 감각능력을 기른다. 영아들은 전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여 보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일과 속에서 영아의 리듬 타기 행동을 자주 접한다. 막 앓기를 시작한 영아도 음악 소리에 맞추어 엉덩이를 썰룩썰룩 거리거나 손뼉을 치며 웃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어린 월령의 영아는 자신의 감정을 몸짓으로 잘 표현한다. 영아에게 몸은 악기이며 몸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

□ 빠른 장단에 리듬 타기

「자장가(5)」의 전주에 한석은 “워이 워이”하면서 이불을 끌어당긴다. 잠시 후 가슴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각 2회씩 토닥거리다가 ‘자랑 자랑~’에 두 손을 모아 울려 이마 위를 빠르고 리듬 있게 두드린다. (2013. 11. 19. 동영상 촬영)

영아가 「자장가(5)」의 전주에 “워이 워이” 한 것은 “윙이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영아는 잠을 청하기 위해 이불을 당겨 보지만 몸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있고, “자랑 자랑~윙이자랑”에 더는 빠른 장단의 흥겨움을 누르지 못하고 몸으로 리듬을 탄다. 이즈음 영아가 전래 자장가를 친숙하게 반기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잠들어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흥분되어 몸짓표현이 많아지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는데 대부분 「자장가(5)」로 인한 반응이었다. 반복 들려주기나 제외하기를 반복하여 실험한 결과 「자장가(5)」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잠 가장놀이하기

영아는 전래 자장가 소리에 잠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잠을 가장한 행동을 나타낸다. 진혁은 「자장가(4)」를 따라 부르다 소리를 멈추고 고개를 돌린다. 이불 속의 발을 살짝 차듯이 움직이다가 내리고 침묵으로 있다. 그러다가 눈을 비비고 엄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위아래로 눌러 감긴다. 어느새 “커~크~~커~크” 하고 코 고는 소리를 내지만 이불 밖으로 살짝 나온 두 발은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까닥거리고 있다.

스스로 눈을 감기고 코 고는 소리를 내며 발을 까닥거리는 것은 자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래 자장가를 잠 노래로 인지하고, 잠과 자장가를 통합함으로써 자야 함을 스스로 각인하는 것으로 낮잠 시간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 고는 소리는 행동을 모방한 것으로 가족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잠자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두 발은 리듬을 타면서 계속해서 까닥거림’은 전래 자장가의 편안한 낮잠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잠과 자장가를 통합하여 잠자는 부모의 모습을 공감하며 일상적 경험을 놀이로 즐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정, 몸짓, 노랫말로 소통하기

영아들은 낮잠 자는 상황과 맥락을 알고, 서로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한석은 음원 소리를 향해 누워있고 진혁이 옆에 앉아 졸음이 가득한 얼굴로 흥얼거리고 있다. ‘윙이 자랑~’에 한석이 씩 웃으며 상체를 반쯤 들어 울려 때 진혁이 이마를 살짝 밀면서 빙그레 웃는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한석은 “잉~” 웃으며 눕는다. 진혁은 귀를 비비며 하품을 하고 반쯤 감긴 눈으로 이불을 내려다본다. “자장 자장~”하고 읊고 노랫말을 따라 부르면서 한석을 토닥거리다가 졸린 듯 움직이지 않는다. 전주가 나오자 고개를 쪽 내리고 바라보다가 눈이 감기며 쓰러져 눕는다.

개별 영아마다 잠을 청하는 모습이 다양하다. 민감한 진혁이는 전래 자장가의 분위기 속에서 눕기보다는 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다. 영아의 ‘이마를 미는’ 것은 누워서 자라는 몸짓 신호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미소로서 확인하고 있다. 영아의 눈 맞추기, 미소 주고받기, 친구의 이마 밀기 행동 등 비언어적 행동은 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주고받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사람 간의 눈 맞

춤은 특별한 의사소통으로 힐끗 보는 것 또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의미를 전달한다 (Ting-Toomey, 1999, 박경자 외, 2005, 재인용).

□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선물

가정에서도 영아에게 전래 자장가를 불러주며 잠을 재우는 일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

한석 외할머니는 79세로 8개월 된 동생을 업고 한석이 때론 똑같이 가정에서의 전래 자장가를 통한 잠들기를 재현해 주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굶을준들 너를사랴
은을준들 너를사랴 자장자장 자장자장 굶자동아 은자동아 자장자장 자장자장
멍멍개야 깃지마라 자장자장 자장자장 꼬꼬닭아 웁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혼자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이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대그해?(계속해? 의 강원도 사투리) 자장~

할머니는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두 손은 엉덩이를 받쳐 잠은 상태에서 중심을 왼뺑으로 옮겼다가 오른뺑으로 옮겨가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 있게 흔들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업힌 아기의 얼굴을 가까이 보시려는 듯 눈을 아기 쪽으로 내리뜨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부르시면서 입가엔 미소가 보일 듯 말 듯 하고 아기도 할머니도 평온한 표정이다. (79세 한석이 외할머니)

33개월 남아 한석은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고 옆으로 누워 움직임이 없다. 교사는 가정에서 녹음해 온 한석 외할머니의 자장가를 들려준다. 한석은 첫 소절에 머리를 조금 움직이면서 눈을 크게 뜨더니 다음 사절에서 등을 돌려 교사를 향해 알아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를 웅얼거린다. 교사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움직임 없이 다시 중얼거리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살짝 웃음이 보인다. 잠시 후 작은 소리로 “할머니, 할머니” 하더니 갑자기 험쩍 웃으면서 일어나 읊원 소리를 향해 “할머니”하면서 바깥으로 소리를 지른다.

잠을 청하던 영아가 친숙한 목소리에 눈을 크게 뜨며 반응을 보인다. 할머니와의 즐거운 잠들기를 회상하고 할머니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할머니를 부르면서 자장가를 통해 교감하며 위로받으면서 자신을 토닥거리며 잠을 청한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가 할머니임을 확신하고 정겹게 할머니를 부르며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에게 가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적 거리감과는 상관없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최수경, 최윤정, 안소영, 2009).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 자장가는 우리에게 마음 가득히 따뜻함을 전해주는 감성의 선물이다.

3. 일상생활 속 이야기

□ 깨물면 안 돼요

18개월 남아 준우와 16개월 남아 우진은 촉각 책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다. 준우가 책장을 넘기고 볼록한 부분을 두드리고 나면 우진이 두드린다. 우진을 기다리는 듯 하다가 준우가 다시 책장을 넘기면서 반복된 행동을 하면서 책을 보고 있다.

잠시 후 준우가 교구장에서 무엇인가 찾는다.

준우 : (촉감책을 꺼내 매달려 있는 아기 개구리를 눌러 소리를 낸다). 뽁~ 뽁~뽁

우진 :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다가 준우에게 다가가서 아기 개구리를 뺏는다) 약~

준우 : 으~으 응~아(우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나서 다가간다)

우진 : 아~앗 (준우에게 빼가지 않으려고 아기 개구리를 잡고 구석으로 피한다)

준우 : 아~, 아~, 나바~ (개구리를 잡아당긴다)

우진 : 아~양~ (준우의 손을 깨물려고 함)

교사 : 예구~ 예구, 깨물면 안 돼, 깨물면 안 돼 (다급한 소리를 내면서 준우를 잡아 떨어뜨린다)

준우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그림책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함)

잠시 후 다른 교사가 우진을 데리고 나가고 준우는 그림책 읽기를 하고 있음.

어린 월령의 또래가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규칙적으로 그림책을 넘기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교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호작용해 준다. 이때 준우가 아기개구리를 눌러 소리를 내자 소리에 민감한 영아는 또래의 것을 빼앗는다. 또래의 것을 빼앗은 우진은 준우가 달라는 신호를 보내자 빼가지 않으려고 구석으로 피한다. 준우가 개구리를 잡아당기자 빼가지 않으려는 우진은 본능적으로 깨물기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사는 깨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영아를 서로 분리시킨다. 준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겨 기분이 격해 있으나 교사는 다른 곳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영아들은 잘 놀다가도 한순간에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또래의 것을 빼앗는 것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 그러나 친구 것을 가져가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 교사가 세심히 관찰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간혹 어린 월령의 영아는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보다는 영아를 서로 떨어뜨려 다른 곳으로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 한다.

□ 그림책 내용과 일상생활을 연결해요

교실 한쪽에 영아용 침대가 놓여 있다. 침대 위에는 폭신한 푸른색 이불이 바르게 정돈되어 있다. 17개월 남아 준우는 교사와 교실 가운데에서 촉감책을 보고 있다. 영아는 엉덩이를 반쯤 들고 양손을 책 가장자리에 대고 촉감책을 살피고 있다. 원장은 출입문 앞에 서서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교사 : 인사도 잘하네, 우리 예쁜이 아가야! 좋은 꿈 꾸렴! (글 텍스트)

준우 : (이불 그림 텍스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일어나서 침대로 간다)

교사 : 준우야! (빠르게 일어나서 준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돌아온다)

준우 : 으~ 으으 (교사에게 안겨서 몸을 흔들며 저항하면서 원장님을 쳐다보면서 집게손가락으로 영아 침대를 가리킨다)

「아가야, 좋은 꿈 꾸렴」 그림책 읽기를 하던 중 준우는 펼침면의 이불 그림 텍스트를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러다가 영아는 일어나서 영아용 침대 쪽으로 걸어간다. 이것은 영아가 그림 텍스트의 이불을 보고 현실 세계 속에서의 실제 이불을 비교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교사는 그림책 읽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침대로 향하는 영아를 안고 돌아온다. 영아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저항한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읽어 주었던 원장님을 보면서 침대를 가리킨다.

영아들은 교사와의 그림책 읽기를 즐긴다. 그림책 읽기를 통해 그림 텍스트와 현실 속의 사물을 찾아 비교하거나 그림책과 그림책 속의 상징을 찾아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그림책 읽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낸다. 이렇듯 비언어 시기의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알리기 위해 몸짓표현이 더 자주 나타난다. 교사가 영아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관찰한다면 영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소리, 손의 떨림 하나에도 자신을 알리려는 표현임을 교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영아의 눈빛은 교감의 통로가 될 것이다.

▣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면 좋은 습관이 생겨요.

영아들이 유익식 활동을 하기 전 유의사항에 대해 교사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 : 뛰어 다니면 (앉아서 뛰어가는 동작을 함)

영아들 : 안돼요 (팔로 쏘자를 나타냄)

교사 :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면 (미끄럼틀을 가리키면서)

영아들 : 안돼요 (팔로 쏘자를 나타냄)

교사 :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영아들 : 안돼요 (팔로 쏘자를 나타냄)

며칠 뒤 교사는 영아들에게 긍정적인 어휘로 약속을 하고 있었다.

교사 : 샅굼샅굼 (샅굼샅굼 걷는 동작을 함)

영아들 : 걸어요

교사 :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영아들 : 바르게 타요.

교사 : 작은 소리로

영아들 : 이야기해요.

교사 : 어~ 어떻게 해요 (잠시 후 뛰어가는 지영에게 작은 소리로)

지영(28개월) :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조금 숙이고) 샅굼샅굼 걸어요.

교사 : 어머, 지영이가 정말 예쁘게 걷는구나

지영 : 히히~ (미끄럼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간다.)

교사는 습관적으로 영아가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상호작용 한다. 영아는 교사의 질문에 대해 생각 없이 ‘안돼요’로 답한다. 영아들은 뛰어가면 넘어지거나 또래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뛰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행동의 설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아들은 부정적인 ‘안돼요’만 강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영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뛰던 영아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살살 걷는 것을 통하여 흥분되었던 기분을 다소 가라앉히고 있다. 다시 미끄럼틀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지만 잠시 안정을 찾아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어휘로 영아들을 대하고 있다. 영아의 바른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아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강화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바른 언어 습관만이 영아의 바른 행동의 습관화를 기를 수 있다.

□ 사회관계의 갈등에 따라 상호작용해요

23개월 여아 서연은 작은 병아리 인형을 손에 쥐고 등원하였다. 놀이를 하면서도 병아리를 꼭 쥐고 있다. 서연은 「병아리」그림책을 펼쳐 병아리 그림 텍스트에 인형을 올려놓는다.

서연 : 똑같다, 똑같다. (얼굴 가득 웃음이 있다. 인형을 내려놓고 책장을 넘긴다)

성우 : (16개월 남아는 바르게 달려와서 인형을 손으로 감싸 안는다). 냐냐~ 냐냐~~

(병아리 인형을 먹는 흉내를 낸)

서연 : (눈을 찡그리며 입술을 뽀족이 내밀고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하며 교사나 성우를 번갈아 쳐다보기를 반복함)

성우 : 냐냐~ (인형을 바라보고 좋아함. 잠시 후 서연 앞에 인형을 내려놓고 가다)

서연 : (내려놓은 인형을 빠르게 채듯이 잡아 먹고 안도의 숨을 쉰다)

서연은 자신의 물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누군가 만지면 빼앗거나나 울어버린다. 그런데 자신 보다 어린 영아가 인형을 가져가자 갈등한다. 어린이집 생활을 통하여 언니, 오빠들이 양보했던 것처럼 자신도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행동을 지시하거나 직접 해결하는 경우 영아의 사회관계 경험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상황이 잘 마무리 되었을 때 교사가 격려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끈다면 영아의 행동은 강화될 것이다. 서연이는 13개월에 입소하여 23개월이 지나고 있다. 2세가 되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게 되는데(정옥분, 2006), 영아는 또한 단계 뛰어오르는 발달의 경계선에 서 있다.

□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속상해요

40개월 남아 진혁은 교사와 「달걀 안녕」 그림책을 보고 있다. 진혁은 오른쪽 다리를 뻗고 왼쪽 다리는 뻗은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위에 그림책을 올려놓고 스스로 책장을 넘긴다. 교사는 앞에 앉아 진혁이가 펼치는 면의 글 텍스트를 읽어준다.

교사 : 뭐예요(구름을 가리킨다)

진혁 : 비 아뿔, 비아뿔(교사를 쳐다보며)

교사 : 비아 오는 구름이구나. 달걀은 어디 갔어요?

진혁 : 몰라 몰라요. (교사를 보고 웃는다). 여기요(구름 끝을 가리킨다)

교사 : 아 거기 숨었구나. 구름 아저씨 비켜주세요(글 텍스트)

진혁 : 왜 안비커지지?(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하고 미소를 머금고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 : 응?(이해 하지 못함)

진혁 : 왜 안비커지지?(손가락으로 구름 끝을 옆으로 살짝 밀듯이)

교사 : 으~ 응(그런 생각을 한 영아가 대견하여)

한석 : (책장을 넘기고 기쁘게 웃으며) 비켰네

교사 : 정말 빗겼네~ (함께 기뻐하며 동의 하듯)

영아는 구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교사의 질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영아는 ‘비가 오는 구름’을 ‘비아불’이라고 답한다. 교사가 ‘달님은 어디 갔어요?’라고 묻자 ‘몰라 몰라요’라고 답한다. 영아가 모른다고 답한 것은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달님을 잘 알고 있고 까꿍 놀이를 하는 것처럼 교사와 웃음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잠시 후 교사가 ‘구름 아저씨 비켜주세요’라고 글 텍스트를 읽어준다. 영아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구름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름이 꿈쩍하지 않자 속상하기만하다. 이것은 영아가 구름을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영아는 나와 타인을 구별해 가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구름이 스스로 비켜주기를 원하고 있다. 뒷장을 넘겨 비켜준 구름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마치며-

영아를 지도하면서 영아의 행동에 따른 일반적인 매뉴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 영아 각각의 독특함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도 같은 상황은 없다. 같은 숲에서 매일 놀이하는 영아들은 그 숲이 같은 숲이라고 인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의 개미와 흰나비는 어제 보았던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닌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나뭇잎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영아들은 느낀다. 매순간 변화하는 자연과 같이 우리 영아들은 매순간 변화를 가져온다. 영아를 지도할 수 있는 획일화된 공식이나 상호작용은 있을 수 없다. 교사는 영아를 진정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일반화된 공식이자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윤정, 한동옥(2013).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과정에 나타난 개인적 내러티브 사례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375-397.
- 한동옥, 최윤정(2015). 작은별 어린이집 영아들의 전래자장가 듣고 낮잠 들기 사례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3),
- 한동옥, 최윤정(2015). 민감하고 반응적인 영아교사 되기. 서울: 공동체. (발간예정)
- Donna S. Wittmer, Sandra H. Petersen (2011). 이승연, 김은영, 강재희, 문혜련, 이성희(옮김).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 -관계중심 접근법*. 서울: 학지사.